

## 학교급식의 의의

### 이 원 표\*

인간의 욕구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시대속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싶다”는 것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욕구일 것이다.

더구나 고도로 성장하는 시대인 요즈음에는 더 잘 먹고, 미식가적인 안목으로서의 식욕구가 더 증대되고 있다.

성인들 뿐만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급식에서도 처음에는 배고픔만을 면하게 해주는 차임의 구호 급식에서부터 현재의 현대인 맛과 영양의 질을 따져서 급식하는 전환과정에서 식생활의 비중이 커졌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하루 세 끼 식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는 출근이나 등교 등의 바쁜 시간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거르게 되며, 점심에는 직장이나 학교 등지에서 거의 외식이나 도시락 또는 집단 급식 형태로서 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저녁에는 각자 생활의 양식에 따라 가정에서 가족중심의 식사를 혹은 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잡은 외식이나 결식으로 인해 하루 세끼중 점심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강이나 식생활 관리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외식의 경우나 도시락 식사를 제외하고 급식형태로 제공받는 집단급식 더구나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의 정의는 다수의 일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말한다. 집단급식의 한부분인 학교급식도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학교

급식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된 목적을 위해 계획적, 교육적으로 실시하는 집단급식이 곧 학교급식이다.

계획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는 학교급식의 의의를 몇가지 형태로서 강조하고자 한다.

#### 1. 국가적인 의의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인데 이것이 잘 표출된 것이 바로 88서울올림픽이다. 올림픽을 치룰 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과 정책이 결국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되어 역사의 한장을 장식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 철저한 조직력과 분석속에 계획되고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국민 모두 화합함에 잘 치룰수 있었지 않았는가? 과연 학교급식의 정책은 어떠한가를 이웃에 있는 일본의 학교급식을 비교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일본이 세계 강국, 세계부국의 대열에 오르게 된 데는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속에 국민 각자 각자의 역할, 학교교육의 역할 분담은 물론 그중 학교급식의 역할 또한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후 일본경제의 황폐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인 식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외국의 원조물품으로 그들의 식생활 습관과는 거리가 먼 생소한 식품인 밀가루, 탈지분유, 식유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들 낯선 식품들의 조리법을 그들 식성에 맞도록 조리법을 개발시키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학교급식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이것이 바로 학교급식의 초석이 된 것이다.

어린이의 건강관리는 물론 이들을 통해서도 국민건강을 국가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된 것은 이미 알려진 일들이다.

1954년에는 일본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기틀을 확립하고 계속 발전하는 속에 99% 이상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발전 제 1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 때 학교급식을 경험해 본 전후 세대인 일본인들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져 전래의 일본식 보다는 서구화된 빵식의 선호도가 문제가 되는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일본은 국가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재정립 하면서 학교급식의 장기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준 계기로 삼은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6.25전쟁 직후부터 외원이 들어오면서 학교급식의 모태인 구호급식이 시작되었다.

이웃 일본의 경험을 우리것으로 하여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효과만을 생각하는 단기적인 계획만을 세우는 바람에 학교의 급식이 시작된지 30여년 후인 1981년 1월 29일에야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고 그후 10여년이 흐른 지금에야 겨우 별표 1과 같이 우리나라 전체 학교수의 10% 정도만이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은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이 전무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이다.

농수산 정책의 잦은 변화로 쌀과동, 돼지고기, 무우과동, 우유과동 등이 일어 값이 폭락하게 되고 배추등의 폭등으로 “김치” 아닌 “금치”로 둔갑을 하는 것 등의 모두는 농수산부나 문교부가 연계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과 학교급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때는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모두의 소리에 역행을 한적이 있다.

학교급식 업무 자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고 지금은 체육부의 존재여부 논란속에 학교급식을 관장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고 또한 업무행정의 일원화를 외치는 여론속에 다시 문교부로 이관되었다. 먹는 일이 왜 문교부속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다시금 장기적인 정책의 부재로 쉽게 쉽게만 처리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붙이면서 어린이는 물론 국민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관해 장기적이고도 거시안적인 학교급식의 현실화등의 대책을 강조한다.

## 2. 사회적 의의

### 가) 교육적인 면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의 사회속에서 나눔의 지혜를 알고, 웃어른 공경의 예절을 익히고, 깨끗한 자아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일반 학습 교과과정중에 포함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있지만 미흡하나마 학교급식이 한 부분을 차지해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있다. 어릴적 부터의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갖게 된다는 얘기이다. 좋은 습관이라면 그대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좋지 않은 습관은 고쳐야만 되는데 특히 식습관이 잘못된 경우는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어렸을 때 부터 바로 잡는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조기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다른 교육보다도 식생활 교육의 조기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서울시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의 필요성조사를 한 연구결과 국민학교에서 학교급식을 경험해본 학생들이 급식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들 보다 더 학교급식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학교급식효과 결과로서 조사되어 발표된 것들이 많이 있다. 필요하고 중요한 결과 보고로서만 끝날일이 아니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성장과정에서 어린학생들이 밝은 사회인으로서 건전한 국민의 한 사람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학교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중의 한 부분인 학교급식이 일익을 해 내는데 한 몫을 하기를 기대한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더 많은 학교에서 식생활 조기교육의 몫도 해내기를

기대하며 학교급식의 의의를 강조해 본다.

나) 인력활용 면에서

고급인력의 사회문제가 되는 여러가지 것들중에 실업률이 문제되고 있다. 그중 고급인력중의 일부분인 영양사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영양사 면허취득 요건은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전문대학 이상 4년제 대학의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여 일정 학점을 취득후 국가고시를 치른 후에 합격을 해야만 보사부장관이 발행하는 자격이 아닌 면허증을 교부받게 되며 영양사 면허취득후 지방 보건직으로 특별 채용이 되어 학교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학교 영양사라 칭한다.

지금까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별표3과 같이 전국에 약 4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취업중인 영양사는 그중 10% 정도인 약 4,000여명 정도만이 취업을 하고 있다.

산업체는 2,800여명 정도가 근무를 하며, 700여명이 학교급식에, 500여명 정도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사라는 고급인력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다른 여러 조건이 있지만 우선은 공급이 넘치고 수요는 따르지 못하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언급한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민건강, 학생건강을 위한 학교급식은 강조된 바와 같이 중요하다.

별표2와 같이 전국의 국민학교수인 7,639개교와 중·고등학교인 4,200여개교 모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이에 따른 농수산물의 효과적인 이용도는 물론이고 여러 고급인력중 한

부분인 영양사 문제만이라도 유향화를 막게 되고 단편적이거나 자연스럽게 밝은 사회상이 기록될 것이라 생각하며 학교급식의 의의를 강조한다.

3. 가정과 개인적인 의의

아직은 부모의 울타리속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이나 건강은 부모의 책임이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다. 어린이 영양건강에 관한 부모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실례가 얼마전에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울 창경국민학교가 여러 이유로 폐교 직면에 있을 때 학생들의 일부가 서울 사대부국으로, 일부는 효제국민학교로 분교하게끔 결정이 되었다.

사대부국은 급식학교였고 효제국교는 비급식학교였었는데 학부모들의 굉장한 요구속에 효제국교도 급식학교로 지정된바 있다.

서울 창경국교의 학부모들이 사대부국과 효제국교의 차이를 둔 측정도가 학교급식을 실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두었던일이 새삼스럽다. 이러한 일은 몇년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있었는데 선거열풍을 타고 서대문지구 모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구민의 요구로 서울 급화국민학교의 급식시설 및 일체의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나서면서 비롯되었는데 학교급식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보면 그 일로 인해 당선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정확치는 않지만 또 당선이

<별표1>

90 학교 급식 실시현황

유 형	학 교 수			학 생 수		
	전 체(교)	급 식(교)	비 율(%)	전 체(명)	급 식(명)	비 율(%)
도 서 벽 지	2,497	392	15.7	278,010	56,981	20.5
농 어 촌	3,282	237	7.2	1,040,609	86,912	8.4
도 시	1,860	136	7.3	3,575,698	153,944	4.3
계	7,639	765	10.0	4,894,307	297,837	6.1

자료 : 문교부 의무교육과

되었다 하더라도 좌우간 학부모들의 학교급식 관심도를 높게 나타내준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학교 입학까지도 입시 경쟁속에 시달리는 바람에 국민학교까지 일류를 찾던 시절에서 지금은 어느 국민학교가 학교급식을 하느냐하는 것으로서 관심도가 바뀌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사립 국민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즈음의 현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학부모들의 움직임은 어린 자녀들의 건강이나 영양을 생각해야 하는 가정 모두의 관심사이자 현인 문제로 등장한 사실로서 건강하고 밝은 어린이로 가꿀 수 있게 되고 건전한 가정이 될 것이다. 학교급식은 또한 학생들이만 아니고 가정의 식생활의 조언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급식실의 자원 봉사자로서 급식에 임하게 하여 식생활 개선의 홍보를 하고 간접적으로는 가정통신이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제도하며 급식을

〈별표 2〉 전국 초·중고등 학교수 및 학생수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국민학교	학교수	6,396(1,243)	4,894,261
	국 립	17	15,450
	공 립	6,302	4,809,958
	사 립	77	68,853
중 학 교	학교수	2,450(46)	2,371,215
	국 립	9	8,775
	공 립	1,734(46)	1,669,242
	사 립	707	693,198
고등학교	학교수	1,672	2,326,062
	국 립	14	19,238
	공 립	815	872,483
	사 립	843	1,434,341

자료 : 89 문교통계연보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 가정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어린 학생 개개인은 물론 가정속에서 영양,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개선, 도시락 문제의 해결 등의 제도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학교급식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해 본다.

〈별표 3〉 연도별 영양사 배출 시설수 및 인원현황

연 도	배출 시설 수			배출 인원	
	전문대	대학교	계 (개)	인원	누계(명)
1964	2	0	2	57	57
1965	4	0	4	117	174
1966	5	1	6	189	363
1967	5	2	7	243	606
1968	5	4	9	423	1,029
1969	5	5	10	347	1,376
1970	5	7	12	354	1,730
1971	6	6	12	377	2,107
1972	5	7	12	388	2,495
1973	8	11	19	565	3,060
1974	8	11	19	684	3,744
1975	-	-	-	695	4,439
1976	-	-	-	824	5,263
1977	-	-	-	1,154	6,417
1978	14	15	29	879	7,296
1979	15	17	32	1,181	8,477
1980	19	16	35	1,544	10,021
1981	24	16	40	1,757	11,778
1982	23	22	45	2,370	14,148
1983	28	21	49	2,126	16,274
1984	41	26	67	2,338	18,612
1985	41	29	70	3,132	21,744
1986	41	31	72	2,433	24,177
1987	43	36	79	3,904	28,081
1988	43	36	79	3,846	31,927
1989	-	-	-	3,695	35,622

\* 1990 약 3,700 40,000

자료 : 대한 영양사회